

간호원의 해외취업

독일병원협회 운영이사 Joerg Lauterbacher

1971. 2.28 Korea Times에 실린 Dr. K.G. Johnson이 쓴 한국간호원과 간호보조원의 독일 취업에 관한 기사에 관하여 간호 요원의 수출은 양 국가에 모두 이롭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본인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한국인들을 독일병원에 취업시키는데 대한 The Korea Times 및 다른 언론기관의 논평을 흥미있게 읽은 바 있습니다.

한국인들을 독일의 여러 병원에 취업시키는데 대한 의논이 분분하고 여론이 크게 퍼지고 있음을 본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세대학교의 교수 Dr. Johnson이 The Korea Times에 쓴 기사를 읽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으며 그의 기사가 그릇된 주장과 의곡된 사실에 근거하며 논쟁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로 평가하여서 한국국민이 한국간호원의 독일취업에 관한 Deutsche Krankenhausgesellschaft와 한국 정부와 유대를 가진 해외개발공사 간에 체결된 계약에 그릇된 인상을 받게끔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한국에 온 것은 한국해외개발공사, 한국정부 및 독일병원 협회가 수개월 또는 여타 해 협의하여 한국인과 독일인에게, 두 같이 혜택을 줄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려 온 것 입니다.

이 계약은 한국 국민의 간호 요원에 대한 국내 수요를 고려하고 있으며 많은 수의 간호보조원들이 독일에서 흥미롭고 대우가 좋은 취업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많은 젊은 한국의 처녀들이 전문적 훈련을 받을 기회를 주며 이 기회가 아니고서는 받을 수도 없고 취업할 수도 없을 것이며 전문적 기회와 취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간호원 혹은 보조간호원으로 훈련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장차로 이 계약을 근거로 한국해외개발공사는

상당수의 병원 요원을 훈련하는 학교를 마련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방금 체결한 이 계약이 양국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독일의 병원에서 배우는 봉사를 제외하고라도 이들은 전문적인 경험을 얻게되고 귀국 후 한국국민에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들의 귀국은 계약 내용에서 보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Dr. Johnson이 말한 바 이 계약이 한국인의 생명을 위태하게 한다는 내용이 전혀 그릇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 계약이 현재 한국에 이룩된 모든 것 보다도 한국인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Dr. Johnson이 언급한 바 독일에서 한국 간호원들이 받는 보수에 대해 본인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싶습니다.

세금, 사회보장, 귀국여비 및 숙식비를 급료에서 빼고도 매월 평균 DM 500(US\$140)이 한국인의 손에 날게 되어 저급을 하거나 쓰끄실은 대로 쓸 수 있습니다. 많은 독일사람들도 그들의 개인 소비에 이런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인이 저급한 돈은 자연히 한국에 오게 되는데 그들의 귀국여비는 이미 공제 되었고(US \$240) 독일까지의 여비는 독일병원에서 부담했기 때문입니다.

독일에서 한국으로 보내오게 되는 저급 외에도 한국사람들은 매인당DM 5,500(US\$ 1,500)을 사회보장이나 생명보험에서 받게 되는데 이것은 독일 법률에 따라 보험에 든 사람이 한국에 귀국한 후에 한국에서 받게 되어있습니다.

본인이 지금 위에서 언급한 계약의 여러 혜택은 불원한 양국 국민에게 분명히 알려질 것이고 한국국민에게도 인식이 될 것으로 믿어 마지 않습니다.